

사람은 실수하기 마련이고 기계는 그것을 막기 마련이다

안전은 이런 때에  
대사하는 것이다



한전KPS(주)는 국내의 수화력 발전소 및 원자력발전소 등의 발전설비와 송변전설비에 대한 정비업무를 수행하여 발전된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하는 업체이며,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 호주, 필리핀, 인도, 레바논 등 해외로도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작년 UAE원전 수주에 따른 해외 원전설비 시운전 및 정비업무에 참여 등 이곳은 발전설비정비에 관한 세계 최고의 정비기술을 자랑하는 내실있는 기업이다. 이곳 보령사업처는 충남 보령시 오천면에 위치한 국내 최대용량의 화력발전소인 보령화력본부의 발전설비를 정비하고 있으며 고소작업, 중량물취급 작업, 고온부 작업 등 수 많은 위험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무재해 3배를 달성한 안전사업장이다. 위험요소가 많음에도 무재해를 달성할 수 있었던 데에는 모든 직원들이 협심하여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킨 것의 결과이겠지만 그 이면에는 전재진 과장의 보이지 않는 꾸준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안전을 나름대로의 철학으로 실천하고 있는 한전KPS(주) 보령사업처의 전재진 과장을 만나 어떠한 노하우가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한전KPS(주) 보령사업처 전재진 과장  
취재 | 사진 김성대 기자(gshu002@safety.or.kr)

### 선임 후 2개월 만에 겪은 사망재해

대전에서 나고 자랐으며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1987년 한전KPS(주)에 입사한 전재진 과장은 삼천포화력과 부산화력 등에서 발전설비의 정비업무를 담당하였다. 평소 무엇이든 꾸준히 노력하는 그는 1994년 안전관리 자격증을 취득하고 보령사업처에 안전관리자로 입사를 했다. 현장직원으로 있다가 자격증 취득 후 지금껏 해보지 않았던 안전관리 업무를 처음 맡게 되었을 때는 무엇을 해야할지 몰랐다. 그러던 차에 안전관리자로 선임된지 2개월만에 사망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사고를 조사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안전업무라는 것이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는 중요한 업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안전을 어떻게 해 나가야할까를 고심한 끝에 그는 교육부터 제대로 해보자는 각오를 다지게 되었다. 이전까지의 안전교육은 대상자들이 마지못해 참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개선하고자 당시로서는 생소하였던 DVD 홈 씨어터를 안전교육장에 설치하여 생동감 있는 안전교육으로 직원들이 스스로 안전교육에 참석토록 하였다. 이렇게 안전교육에 몰입양면으로 노력한 결과 선임 초기에 연평균 5~6건 발생하던 안전사고가 점차 줄어들어 현재는 2년 넘게 무재해를 유지하고 있다.

## 무재해와 안전주변제도

선임 초 사망재해를 겪으며 무재해 운동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건설업과 제조업의 위험요소를 모두 갖고있는 한전KPS(주)는 기존 무재해 업종분류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제5업종이 생겨났다고 한다. 무재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체크리스트 방식에 의한 형식적인 안전순찰이 의미가 없다고 느낀 그는 현장의 한 팀장에게 힌트를 얻어 거의 백지형태의 안전순찰일지를 만들게 된다. 안전을 하려면 형식에 얽매이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에서 만들어진 백지형태의 순찰일지로 기존에 찾아내지 못하였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시행중인 '안전주변 제도'이다. 이처럼 매주 백지형태의 안전순찰일지를 토대로 진행하는 회의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즉각 공정에 반영돼 사고예방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한다.

## 안전정보와 안전관리

안전관리 업무를 하고자 하면 많은 것을 알아야 한다. 즉 정보의 취득이 빨라야 보다 안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전제진 과장은 국내의 안전행사가 있으면 가끔씩 참석한다. 가서 눈으로 보고 직접 써 봐야 이것이 작업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보다 더 많은 정보를 취합함으로써 단지 몰라서라는 이유로 재해가 발생하는 것도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는 실천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항상 안전교육, 안전행사 등에 직원들을 참석토록 독려하고 있으며 다녀온 직원들과 정보를 교류하여 한전KPS(주)에 적합한 안전시설, 보호구를 바로 구입하여 사용토록 한다.

## 안전관리란 사고의 발생비율을 낮추는 것

이론적으로 사고는 반드시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실재는 이론과 다르다. 사람은 실수를 하기 마련이고 기계는 반드시 고장이 난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이론적으로만 안전에 다가가고자 한다면 큰 부분을 놓치는 절름발이 안전이라고 할 수 있다. 서양 어느 학자의 말을 인용하면 사람이 하루 약 2만번의 행동을 하고 그중 2번정도의 실수를 한다고 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만일에 대비한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안전관리란 그 1만분의 1의 확률을 관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전 과장도 안전업무를 처음 하게 되었던 때에는 열심히 노력하는 데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회의가 들기도 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사람은 실수하기 마련이라는 간단한 사실을 염두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보다는 줄이지는 생각으로 안전업무를 하게 되니 점차 사고가 줄기 시작하였고 무재해도 달성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전과장은 현재 사람의 실수를 보다 더 줄이기 위해 아차사고사례 발표대회, 안전작업허가제 실시, 잔재위험 발굴제도 실시 등 다양한 안전활동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

